

광주·전남 시도지사 후보 공약경쟁 불붙었다

일자리·명문대 유치 등 정책선거 돌입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후보들은 연일 일자리 창출·지역 건설업 살리기·명문대 유치·관광거점 마련과 같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후보들은 '정책선거' 등 중앙 정치 이슈보다는 지역발전 비전이 유권자들에게 더 먹힐 것으로 보고 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정책제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는 매주 한 차례씩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선거'를 선포하고 있다. 정 후보는 6일에도 포스코의 LED(발광다이오드) 사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기아차 이전 증설 및 자동차 부품단지 조성 ▲용·복합 R&D특구 조성 및 명문대·고등학교 육성 ▲컨벤션·박람회 활성화 ▲광주·영산강 살리기 및 구도심 지역 활성화 ▲광주·전남 통합 등 7개의 대표 공약을 내놓았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정 후보는 이들 정책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강운태 후보도 이날 '민생 쟁기기' 후보 확정 이후 첫 행보를 시작했다. 강 후보는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의 경영악화와 관련해 금융권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특별간담회'를 갖고, 광주를 '민생안정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후보는 앞서 학계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20개의 핵심공약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 ▲R&D특구 개발 및 LED특화단지 조성 ▲비엔날레·감치 축제·첨단엑스포 등 3대 축제 세계적 문화관광 상품화 ▲도시 재생사업 적극 추진 ▲자동차·가전·광산업·문화산업·그린에너지산업 등 5대 주력산업 집중 육성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 장원섭 후보는 서민복지와 생활자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장 후보는 정규직 1만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장 후보는 이밖에 ▲청년실업 의무고용제 도입 ▲무상교육·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민참여형 인사청문회 제도 실시 등의 공약을 내놓고 서민과 노동자 등 지지기반을 과고르고 있다.

진보신당 윤산실 후보는 ▲시청에서 시민을 쫓아내는 일 ▲계왕적 광주시장으로 군림하는 것 ▲연말 '보

도블록' 교체 ▲등구장 건설 ▲영산강 죽이기 사업 등을 하지 않겠다고 '시장에 당선되면 절대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몇몇 정책을 내놓은 국민참여당 이병만·정찬용 후보는 7일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분야별 세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지사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는 이날 ▲전남 동부권에 포함공대 수준의 선도대학 유치 ▲제2 전남도청사 건립, 광양-일번 간 페리 항로 개설 ▲광양항만 초 광역경제권 구축 등을 발표했다.

민주당 박준영 후보는 이날 구례에서 "구례에 지리산 역사문화 체험단지 등 은퇴자 마을을 조성해 전남 내륙의 관광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전남지역을 돌며 매일 그 지역 현안 및 특색에 맞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박 후보의 주요 공약은 ▲기업 2000개 유치를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관광객 1억 명 유치 ▲미래산업 R&D기반 구축 ▲친환경생태 농도 실현 등이다.

민주당 박용우 후보는 체불임금 지원금 1000억 원 조성과 사회공공영역 일자리 확충, 농업 재해대책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다.

최원경기자 cki@kwangju.co.kr



봄농활 즐거운 대학생들

전남대 경영학부와 경제학부 학생들이 6일 함평군 손불면 대성마을에서 모판을 옮기며 환하고 웃고 있다. 이들은 영농철인데도 지방선거와 희망근로로 인해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농가들을 위해 농활에 나섰다

함평=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상기후의 두 얼굴

젖은 비·냉해로 과수·천일염 울상

저수를 89%로 급증...산불은 급감

불철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해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 냉해로 시설하우스와 과수·천일염 등 농·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반면 주암호·광주호 등 저수율이 증가하고 산발발생이 감소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4대호 저수율 평균 88.57% =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6일 현재 농업용 저수지인 4대호(광주호·나주호·장성호·담양호)의 평균 저수율은 88.57%이다. 이는 가뭄이 극

심했던 지난해 50.36%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이며 평년 79.03%보다 월등히 높다.

광주·전남의 최대 상수원인 주암호는 43%(지난해 18.5%), 장흥댐은 56.4%(지난해 30.9%)의 저수율을 각각 보이고 있다.

젖은 비로 산불도 크게 감소했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1~4월 1031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620건으로, 39.9%가 줄었다.

천일염 생산 크게 줄어=대한염업조합에 따르면 전국 천일염 생

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신안 천일염 생산량은 지난해 4월 5만t이었으나 올해는 1만4000t에 불과, 70%가 감소했다. 단일 면적으로 전국 최대인 증도 태평염전의 경우 지난 3월 28일부터 작업에 들어갔으나, 4월 중에 단 이틀간 30kg짜리 1만여포대를 생산하는데 그쳤다.

이 이는 지난해의 5분의 1수준이다. 나주 배나 광양 매실·순천 복숭아·영암 무화과 등 과수역시 개화에기에 심각한 냉해를 입은데다 수정을 돕는 벌들의 활동이 저조해 생산

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농민연합이 공개한 지역별 농작물 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과실재배면적의 34%가 큰 피해를 입었다.

해남·장흥지역 등 보리 재배면적의 70% 이상이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돼 논을 갈아엎는 농민이 줄었고 나주배 냉해피해 규모도 60%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주지역 배농기들은 지난 4월 나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냉해 피해 조사와 지원대책 등을 요구했다."

송기동·조완남·최승렬기자 song@

민주 진도군수·남구 광역의원 후보 경선 사실상 무효

법원이 민주당 진도군수 및 광주 남구의 광역의원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당선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나란히 인용함에 따라 두 곳에서 치러진 경선이 사실상 무효 처리됐다.

〈관련 기사 3면〉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신재성)는 6일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경부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당선인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민주당의 광주·전남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나머지 6건의 가처분 사건의 추가 인용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진도군수 경선 당시 0.12%포인트 차로 이동진 예비후보가 당선된 것은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산출하지 않은 결과'라며 김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곳의 기관에서 벌인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는 425표(A기관 189표, B기관 236표)를 얻어 424표(201표, 223표)에 그친 이 후보보다 1표를 많이 얻었다.

그러나 당에서 두 기관의 득표를 만들 각각 단순 합산해 평균을 구하

는 방식으로 비율을 산정함으로써 김 후보가 1표를 적게 얻은 이 후보(50.06%)에게 0.12%포인트 뒤져 탈락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기관에서의 후보자별 득표율을 각각 따로 평균을 낸 것은 당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두 기관에서 후보자들이 얻은 총 득표를 유권자 수로 나눴다면 당선인이 탈락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병이, 유정삼, 안원근 후보 등 광주 남구 시의원 후보경선 탈락자 3명이 민주당 광주시당을 상대로 낸 당선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1일 남구 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경선에서 당선된 김만근 후보의 민주당 당적(黨籍)이 없다는 윤 후보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2008년 5월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에서 탈락한 뒤 복당이나 재입당 절차를 밟지 않아 경선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데도 당선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2년 전 탈락은 후보경선에 불만을 품은 일부 당원들이 탈당계를 제출했을 뿐 개인적으로 탈당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정관장 가정의 달 대잔치 2010년 5월 1일 - 5월 21일

5월 가정의 달, 정관장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1만원권 증정, 5% 혜택, 볼드컵 응원전, 푸이자랑부

정관장 가정의 달 대잔치 2010년 5월 1일 - 5월 21일

1만원권 증정: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정관장 가정의 달 대잔치 기간 동안 1만원권 증정

5% 혜택: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정관장 가정의 달 대잔치 기간 동안 5% 혜택

볼드컵 응원전: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정관장 가정의 달 대잔치 기간 동안 볼드컵 응원전

푸이자랑부: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정관장 가정의 달 대잔치 기간 동안 푸이자랑부

문의: 062-220-0541

김정일·후진타오 北가극 관람 불발

訪中 마치고 평양행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방중단 전원이 6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간 오후 5시30분)께 베이징 역을 출발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 일행이 3박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 일행은 앞서 이날 오후 4시10분 베이징 숙소인 다오위타이를 출발, 10분후인 오후 4시21분에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다오위타이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오찬회동했으며 이 자리에는 리커창 부총리가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당초 이날 저녁 7시30분께 베이징 TV 대극장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북한과파다가극단의 '홍루몽'을 관람해 대내외에 양국간 우의를 과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불발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김정일-후진타오 홍루몽 공동 관람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평 가졌던 얘기가 잘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추론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알림

제19회 光日 쪼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일 시: 2010년 5월 30일(일) 오전 10시

■장 소: 한국기원 광주지원(광주시 주월동 국제호텔 건너편 3층)

■참가자격: 광주·전남지역 근무 직장인

■팀 구성: 단체전=1팀 3명(주장·부장·삼장)
한 직장에서 여러팀 참가 가능
개인전=각 팀에서 1명

■참가신청: 5월 28일(금) 오후 5시까지
한국기원 광주지원 062-675-3448
광주일보 문화홍보국 062-220-0541

■참가비: 1팀당 3만원(개인전 포함)

■시 상: 단체 및 개인별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시 상 식: 6월 4일(금) 오전 10시30분 광주일보 16층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시바둑협회

익교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뮤니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호남예술제

접수기간

미술·작문 부문
5월 6일(목) ~ 13일(목)

http://art.kjmedia.co.kr
062-220-0541